

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⑩



△창원공정중공사

〈지난호에 이어〉
창원공단 입주의 모험
 기계공업은 모든 산업에 대하여 기초적인 생산설비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전후방 연쇄효과가 크고 부가가치도 막대하다.

창원공단 입주 결정
 1975년 9월 상공부로부터 창원공단 입주를 권유하는 공문을 접수하게 되었다. 내용은 창원에 종합기계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화천 같은 전통 있는 공장기계 메이커가 앞장서 입주해주시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나는 입주할 입장이 못 된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정부에서는 화천의 기술력과 규모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모양이었지만, 그때까지 나는 우리 화천의 능력이 창원공단에 입주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힘에 벽찬 무리수를 두지 않고 작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경영의 미덕이라고 믿고 있다.

나의 분명한 입주 사상의사 전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권유는 몇 차례 더 계속되었다. 마침내 1976년 2월에는 청와대까지 나섰다. 나는 거의 마지 못하는 심정으로 당시 오일철 경제수석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방문 통보를 받고 그를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경제수석은 '한국 최초의 종합기계공단에 화천 같은 전문 메이커가 입주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부의 기계공업 육성정책을 의심하게 된다'고 하면서 입주에 필요한 자금은 전폭 지원하겠으니 꼭 입주해달라고 거듭 호소하였다. 이때 나는 경제수석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우리 화천이 창원에 입주를 결정하기 전에 제가 미국을 한번 다녀 오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우리가 만든 물건들을 팔 수 있겠는가 없었는가를 알아본 후에 결심을 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경제수석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화천의 창원공단 입주는 쫓기듯이 결정되었다.

미국시장부터 개척하고 보자



문제 유의물이 황제에 오른 지 27년이 되는 해에 역시 등극한지 27년이 되는 북위의 태무제 탁발도(拓拔燾)가 송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북조를 통일했으니 남조까지 멸망시켜서 진시황제를 닮아 대일통을 달성해 보려는 속셈이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아마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모두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이 정보를 입수한 송의 문제는 장강이 북에 사는 주민을 모두 장강을 건너 남쪽으로 오게 하고 그 일대에는 성이건, 건물이건, 배건, 수레건 모두 불태우게 하였다. 이런 바 청야작전인 것이다. 적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현지에서 보급품을 구할 수 없게 하여 오래 싸울 수 없게 하려는 대책인 셈이지만 싸우기 전에도 이미 집과 재산을 잃는 비극은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북위의 군대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이(尉夷, 강소성 우이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물론 북위의 황제인 탁발도가 직접 내려왔고 이를 막는 송의 장수는 장질이었다. 장질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탁발도가 장질에게 술을 달라고 하자 장질은 오줌 한 통을 보냈다. 신경전이 시작된 것이다. 탁발도가 우이성을 공격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온 병사들은 주변의 소수민족들이니 싸우다 죽어도 북위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를 제거하는 것이라

1976년 5월 11일 나는 기획담당 박성민 상무를 대동하고 대미수출 세일즈 출장 길에 올랐다. 이미 지난해부터 코트라(KOTRA)

를 통해 시장의 문을 두드려오긴 했으나 아직 확실한 거래처는 나시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화천의 기계가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최고라는 평을 듣고 있지만 과연 세계 제일의 선진국인 미국시장에서도 팔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초조한 여정이었다.

그런데 첫 도착지인 LA에서 뜻밖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들른 '우래옥'이라는 한국 식당에서 재미교포 허만 최(한국명 최희만)씨를 우연히 만난 것이었다. 그는 우리 공장에 몇 번 다녀간 적이 있는 무역상으로 서로 좋은 인상을 지니고 있던 터라 새삼스레 반가운 만남이 되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사업 예기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허만 최씨는 마침 잘 아는 미국 기계 수입상을 한국에 데리고 가서 화천에 소개하려던 참이었다고 하면서 그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다. 그가 바로 화천의 미국시장 진출의 첫 문을 열어주게 되는 발스비(Robert S. Bursby)씨였다. 당시 발스비씨는 재팬 머시너리(Japan Machinery)라는 상호를 내걸고 주로 일본의 모리세키 435형과 520형 등의 선반류를 취급하고 있었다.

이 무렵 화천에서도 모리세키 선반과 상능이나 품질 면에서 비슷한 공장기계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발스비씨는 품질과 성능만 믿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계약하겠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나는 발스비씨와 435형 5대, 520형 10대를 우선 수출한 뒤 반응이 좋으면 1977년부터 5년 동안 연간 최소 500대에서 최대 1,000대를 수출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수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출시장 개척이 무척 어려운 것으로 예상했던 나는 이 같은 기대 이상의 성과에 큰 힘을 얻었다. 아울러 우리 화천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원공단에 입주해도 괜찮겠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세계 공장기계 시장의 현실을 둘러보면서 '우리로 국내시장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시바빠 세계시장 진출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

전쟁이 가져 온 비극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고 하면서 장질에게 공갈하였다. 그러자 장질은 '그대가 보내 온 칼로 당신을 자르겠다.'고 응수하였다. 심리전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심리전에서 이기지 못한 탁발도는 화가 나서 쇠로 상을 만들어서 철첩(鐵鉈)을 꽂아 놓고 장질을 잡으면 그 상위에 올려놓겠다고 벌렸다. 그러자 장질은 탁발도에게 끌려 온 북위의 병사들에게 '너희 주군이 너희들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말한' 편지 내용을 알려 주면서 탁발도의 목을 베어 오면 만호후로 책봉하겠다고 격문을 보냈다.

더 이상 심리전이 안 통하는 것을 안 탁발도는 총력을 기울여 우이성을 공격했다. 북위는 갈고리로 성을 무너트리려고 했고, 또 총차(衝車)로 성을 허물어 버리려고도 했다. 나중에는 북위의 병사들이 맨몸으로 성에 다가와서 오르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교대로 성에 오르려고 하는데 떨어지면 다시 오르고 하면서 물러나는 사람이 없었다. 정말로 사생결단하는 공격이었지만 장질은 잘 막았다. 그래서 죽고 부상당하는 북위의 사람은 1만 명을 헤아리니 시체가 성의 높이와 같게 되었다. 북위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었다. 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난관 속의 창원공장 건설

나는 귀국하자마자 귀국인사 겸해서 청와대를 방문하여 오일철 경제수석비서관을 만났다. 내 얘기를 듣고 난 후 오비서관은 "권 사장,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권 사장의 일이 곧 국가의 사업이며, 우리 민족의 장래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수출 계약서야 화천의 것이겠지만 내 자신의 일처럼 반갑고 기쁩니다. 화천의 창원공단 입주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든지 지원할 터이니 공장건물부터 먼저 지으시지요."라며 두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아 분명한 결의를 보이는 것이었다.

창원공단 입주를 결정하고 1976년 8월 24일 정부로부터 입주 업체로 지정을 받으면서 공장 건설은 본격화되었다. 이때 화천은 정부로부터 공자 시설자금으로 600만 달러의 차관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자금은 10년 연부로 상환하는 아주 좋은 조건의 외국차관이었다.

새 공장이 들어설 자리는 30여만 평의 완암단지로 화천은 이곳에 3만 2,000명의 부지를 확보하고 1977년 4월까지 제반 건설계획을 완료하였다. 계획의 골자는 확대로 된 부지에 총 1만여 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여 최신 공장기계 생산설비를 갖추고,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해 NC 자동선반을 비롯한 각종 고급 정밀 공장기계를 개발·생산함으로써 화천의 대량수출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것이었다.

기계 설치와 준공

기계 설치가 거의 다 되어갈 무렵 4,000여 평의 공장과 각종 부대시설, 800여 평의 새마을회관(사원아파트), 4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그리고 종합휴게실(식당 포함) 등 대부분의 건축공사도 마무리되었다.

당시 외국에서 도입해 설치한 주요 기계는 미국 데블리지(Devilieg)사의 Jig Mill을 비롯하여 공구 60개가 자동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일본 미쯔이 세이키(Mitsui Seiki)의 Machining Center 및 Excello 연마기 등과 독일 크부프그(Coburg)사에 주문한 Planer Bed Grinder도 뒤이어 설치되었다.

이 외에도 창원공장에는 최신식 밀링, 보링, 그라인딩 기계들, 고정밀 측정설비 등을 고루 갖추었으며 명실공히 세계적인 종합공장기계 메이커의 위상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로써 화천은 1980년대 도약의 발판이 될 창원공장시대를 힘차게 개막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②

(규원사화)

■ 一沙權正孝 옮김



(佛陀)'라 하고, 대신 사람들은 '천주(天主)'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주를 주재하고 만물을 통치함을 말로서 드러낸 것이다. 그 조물주의 성품은 백성에 따라 제각기 다른 것인가, 바람은 같으면서 드러남만이 다른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온전히 같으나 달리 불뿐인가? 같은 우두머리를 두고 우리는 '임금'이라 하고, 한나라는 '제왕'이라 하고, 왜는 '명' 혹은 '존'이라 하니, 모든 민족이 조물주를 이르는 것 또한 그와 같을 따름인가?

날아다니는 반딧불에도 빛이 있고 썩은 나무에서도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갈나무 배나무는 가지에 접을 붙이면 능히 과실이 무성해 지고, 오리나 닭 등은 알을 품어 능히 새끼를 낳아 기르니, 이것은 몸의 바탕 외에 따로 응결된 힘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사물과 사물들의 응결된 힘이 서로 교섭하여 능히 생명을 낳는 것인가? 우주의 안으로 아득히 넓은 그 언저리에 따로 정령(精靈)이 있어 일관되게 흐르고 두루 감싸안으며 그 몸의 바탕을 밀어 움직이게 하는 것이겠는가?

한나라 사람의 말에는 반고(盤古)와 삼황(三皇)이 세상을 처음으로 연 창시자라 하는데 이것이 진실인가? 동방 사람의 말에는 삼신(三神)이 세상을 처음으로 가른 창조자라 하는 데 이것이 진실인가? 내가 감히 그 옳고 그름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우주의 안으로 아득히 넓은 그 언저리에 따로 한 근 정령(精靈)이 있어 이 세상을 잡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주재하여 펼치며 능히 밀어 움직여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면 곧 믿을 만한 것이 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槐雲 칼럼

아우슈비츠 수용소 방문소감

■ 槐雲 權海兆 (倭射公派, 三槐堂宗中)

지난 5월 중순 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 최대수용소였던 폴란드 아우슈비츠(폴란드 명 Oswiecim: 오슈비엥츨)수용소를 방문하였다. 폴란드의 남부 문화, 교육, 문학의 도시인 옛 수도 크라코프에서 서쪽 6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아우슈비츠는 원래는 인구 5만대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업도시였으며, 부근에 양질의 석탄광산과 유명한 비엘리츠키(Wieliczka) 소금광산이 있다. 독일이 이곳에 수용소를 설치한 이유는 교통의 중심지로, 당시 군수물자의 보급기지가 있었고 이 지역에 전체 유대인 60% 이상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의 종교와 부(富)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치가 유대인을 확실한 이유는 히틀러가 유년시절 유대인 대학총장 때문에 예술가의 꿈이 좌절되고, 유대인 여성과 짝사랑 등 정신적 콤플렉스가 크게 작용을 했으며, 당시 유대인이 페스트를 전염시켰기 때문이라 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처음에는 폴란드, 독일의 정치범과 소련군의 포로를 수용하기 위하여 1940년 4월 27일 이곳에 제 1수용소가 세워져 40년 6월부터 폴란드 정치범이 수용되었다. 수용인원이 넘치자 41년 10월 3km 떨어진 비르케나우(폴란드 명: 브레지카)에 1수용소의 10배가 넘는 제 2수용소와, 근처 제 3수용소까지 건설하였다. 처음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42년부터 본격적인 대량살해 시설로 변모되고 1944년까지 유대인 400~600여만 명이 대량살해되었다.

독일은 학살증거인멸을 위하여 종전을 앞둔 1945년 1월 수용소 대부분을 불태웠다. 그러나 소련군의 조기 진주로 1수용소 일부가 남았으며, 폴란드 정부는 나치에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하여 현존 보존을 결정하고 1947년 제 1수용소 지역에 박물관을 만들고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아우슈비츠 제 1수용소는 전체 28동의

붉은 벽돌 건물로 되어 있고, 현재는 박물관과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다. 포로들은 당시 이곳에서 1일 11시간의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1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제 1수용소 입구 철문에는 독일어로 'Arbeit Macht Frei(일하면 자유로워 질수 있다)'라는 나치의 기만설교문이 걸려 있었다. 당시 제 2수용소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았으며 통상 다크멘트리 영화 제작은 제 2수용소를 형상화하고 있다. 2수용소 입구는 '죽음의 문'이라 불렸으며 열차노선이 끝나는 부분에 '국제 위험비'가 건립되어있다.

제 1수용소 자리였던 박물관을 둘러보니, 도망자를 막기 위해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조망, 고문실, 샤워실로 가장한 가스실과 교수대, 특히 박물관 내부에 진열된 유품들과 부작된 여러 사진들을 보니, 당시 나치의 가혹한 잔인성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사람을 굶겨 피골이 상접되고 동공이 초점을 잃어 영혼이 빠져버린 산소장의 모습을, 무수히 남겨진 유품들 가운데 신발, 의족(義足), 안경과 밥그릇, 이틀과 반호가 새겨진 수많은 가방들, 머리털을 잘라 만든 수제 캐뎃 등을 보니 20세기 인간이 보여준 최고의 비극 현장이었다. 당시 나치는 수용소로 무차별 끌려온 포로를 고문 선별하여 노약자, 불구자, 어린이 등 무 노동력 자는 샤워실(가스실)로 끌고 가서 독가스로 죽였다. 당시 나치가 개발한 독가스 1통에 400여명을 죽였다고 한다. 그리고 시체의 머리카락은 수제품, 기름은 비누, 뼈는 비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2차 대전의 뼈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숨겨져있는 이곳 수용소를 보니 예술과 낭만이 가득한 유럽의 풍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아픔과 비극의 역사현장이었다. 언

임원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총재대회비 △권길상(부총재) 100만원	
■ 중무위원회비 △권영환(음성) 20만원 △권오식(안동) 20만원 △권택원(예천) 20만원 △권오익(인천) 20만원 △권용호(포항) 20만원	소계 100만원
■ 대의원회비 △권오섭(진천) 10만원 △권오현(음성) 10만원 △권태보(금천) 10만원	소계 30만원
합계 230만원	



젠가 가본 우리나라 거제도에 있는 6.25 포로수용소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리고 당시 중국 하얼빈 남방에서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인을 감옥에 가두고 생체실험을 했던 일본의 731부대(마루타)나 오늘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상상해보았다.

특히 이곳을 찾는 한국관광객은 연간 4만여 명이나 되고 독일관광객도 많지만 일본관광객은 볼 수가 없다는 안내사 말을 듣고 일본에 대해 증오감을 느꼈다. 전후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국에 용서를 구한 독일과 너무나 다르게 강제로 끌고 간 국내위안부를 부정하며, 731 부대 만행을 숨기고 새롭게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며 군국주의로 회귀하려하려는 후안무치(厚顏無恥)의 일본 정부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당시 유대인의 학살과 수용소의 비참성은 영화 '우울한 일요일' 등에서 엿볼 수 있었지만, 인간이 저질러 가장 야만적이고 잔악한 광기의 역사현장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희생된 수많은 영혼들의 명복을 빌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과 잔악한 인권유린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박물관을 나왔다.

別世 原任 權五銖 翁 別世

시조 원임을 지낸 안동 권오수(翁)이 지난 6월 15일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항상 인자한 친목으로 일관하면서 타의 모범을 보이며 오문문신잔에 크게 기여했다. 권옹은 많은 조문객이 참례한 가운데 17일 3일장으로 안동시 인막동 선영에 배위 창원황씨와 합렴했으며 슬하에 5남(尙逸, 尙奇, 尙洪, 尙正, 尙勳)을 두고 있다.

